

“과학은 탐구와 실천이 더욱 필요하다”

[밍후이왕] 리치화(李其华)는 1931년에 참군했고, 이직 휴양하기전까지 제 2 군의대학 교장과 총후방위 생부 정위 및 북경 301 병원 원장을 역임했었다.

리치화의 아내는 몇 십 년간 중병으로 앓다가 파룬궁을 수련한 후 질병이 모두 사라졌다. 리치화도 파룬궁의 신기한 놀라운 효과를 보고 1993년부터 수련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그의 온몸의 병은 약을 쓰지 않고도 가뭏없이 사라졌다.

파룬궁을 수련한 후 리치화의 신체는 나날이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사상경지도 뚜렷한 승화를 가져왔다. 리치화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이 직접 경험한 후 파룬궁은 바로 진정한 더욱 높은 과학임을 깊이 깨달게 되었다. 80여세 되는 리치화는 ‘과학 연구의 출발점은 원칙이 아니라 탐구와 실천이 더욱 필요하다.’ 라는 문장에서

“나는 일생에서 많은 중대한 문제를 추구하고 탐구하고 사고하여 왔는데 인생관과 세계관 문제, 의



학중의 생명과학 문제, 사회과학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전법륜’ 이 책에서 다 해결 되었다. 나의 사상 경지는 한차례 승화를 가져왔다고 말할 수 있다.”

“사실 나 한사람만 이런 것이 아니다. 내가 다니던 북경 로년 파룬궁 학습소조에는 70여세, 80세 넘는 로인들이 많았는데 그들 중 많

은 사람은 ‘로혁명’, ‘로간부’, ‘로과학가’, ‘로교수’라고 부르는 지도자와 고급지식계층이다. 이들은 무엇을 맹목적으로 믿지 않으며, 머리가 단순하지 않다. 그들은 진지하게 깊이 생각해 본 후에야 파룬궁을 수련했다.”

“그들은 나와 마찬가지로 고희의 나이에 리홍쯔(李洪志)선생님의 대법을 얻게 되어 모두 너무나 연분이 있고 너무나 진귀하고 너무나 행운이라고 생각했다. 동시에 모두들 하나의 소원이 있는데 우리들의 옛 전우, 옛 동료, 옛 상급, 그리고 우리의 중년일대, 젊은 일대, 소년일대들이 모두 다 고유의 관념을 버리고 평온한 마음으로 ‘전법륜’을 열독하고 파룬궁을 수련해 보았으면 한다. 그런 후 우리 이 로년 일대의 말이 조금이나마 도리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대법이 우리의 정신문명건설에 대해 정말 이익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라고 썼다◇

무엇때문에 ‘매개 중국인은 모두 납세인이다’ 라고 말하는가

[밍후이왕] 중국에는 ‘주민소비세’라는 특별한 납세제도가 있다, 이는 국가세금수입의 주요 래원이다.

소비세는 한 가지 상품이 생산해서부터 고객에게 판매 될 때까지 매환절에서 모두 세금을 가하는데, 매 단계에서 제안(提出) 된 세금을 성분(成本)에 가한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공장, 회사, 상점에서 국가에 내는 증가세(增值稅)는 결국 소비자들이 내는 것이다. 단지 공장과 회사는 미리 소비자 대신 냈을 뿐 결코 납

세를 하지 않은 것과 같다. 그냥 나중에 소득세(所得稅)만 낸다.

중국 대륙에서는 누구든 1원을 소비하면 오십 전을 국가에 바치게 되어 그냥 오십 전의 상품을 산 것으로 된다.

한사람이 태어난 후 일단 소비를 하면 곧 납세인이다. 한가정의 매년 소비금액으로 계산해 만약 매년 2 만원을 지출한다면 1 만원은 국가에 바치게 된다.

겉으로 보면 당신이 직접 납세를 하지 않았으나 일단 소비만 하면

끊임없이 납세를 하게 된다. 때문에 매개 사람은 모두 납세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공산당이 너에게 돈을 준다.” 이것은 공산당이 백성들에게 부여놓은 거짓말이다.

공산당 자체는 돈이 없고, 그것은 일을 하지 않고, 농사도 짓지 않고, 가치도 창조하지 않는다. 그것은 중국인에 의존해 살아간다. 우리 이 납세인의 돈으로 공산당을 먹여 살리고 있다.

(글 / 밍쓰)



순박한 남자의 사랑

료녕부신시(辽宁省阜新市) 파룬궁 수련생 천샤오잉(陈晓英)은 파룬궁 진상자료를 발급했다 하여 부신공안분국에서는 불법적으로 구류소에 갇아 놓았다.

이튿날, 천샤오잉의 남편 추이광시(崔广喜)는 장미 꽃 한송이를 들고 아내보러 왔다. 그는: “샤오잉, 오늘은 당신이 생일입니다, 결혼한지 30년이 되어도 나는 종래로 당신한테 선물한 적이 없어요 오늘 나는 각별히 나의 마음을 대표하는 장미 꽃 한송이를 사다 당신에게 드립니다. 당신은 나의 참된 아내이며 파룬궁을 수련하는 당신들에게 잘못이 없습니다. 이 꽃을 그들은(경찰) 안으로 가져가면 안된다 하여 조금 후 나는 갖고가야 하니 당신은 몇번 더 보아요. 생각지도 못하게 금년 당신의 생일을 여기에서 보내다니……나는 비록 파룬궁을 련마하지 않지만 나는 당신의 신앙을 지지하며 당신들은 ‘쩐,싼,런(真、善、忍)----진선인’을 수련하는 좋은 사람들입니다! 무릇 누가 반대하더라도 나는 언제나 당신의 신변에 있을 것이며 당신을 지지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일장 연설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을 감동시켰다.

길림성 여자 감옥의 잔혹한 ‘전향’ 박해

길림성 여자 감옥은 파룬궁수련생을 잔혹하게 박해하는 것으로 소문났다. 전국각지 감옥악경들은 여기에 와서 어떻게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하는 가를 배워간다. 확실히 그들은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잔인하고, 음험하고 악랄한 수단으로 박해한다. 일단 여자감옥에 들어가 ‘전향(转化)’하지 않으면 손과 발을 묶어 침대에 달아매 놓고는 몇 명 죄인들 혹은 사오자들이 번갈아 지키면서 때리고 욕하는 것이 반복된다. 악경들은 보지 않는 척하므로 하수인들이 마음대로 괴롭히고, 강박으로 ‘전향’시킨다.

악인들은 파룬궁수련생 랑옌메이(郎艳梅)가 ‘전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온종일 강박으로 쪽걸상에 앉아 있게 했으며 화장실에도 보내지 않아 대변마저 바지에다 누었다. 엄동설한에도 흠바지를 입고 쪽걸상에 앉아 있게 했다. 악인 장옌메이(张艳梅)의 수단은 아주 잔인했는데 오직 이래야만 악경들의 눈에 들어 높은 점수를 가질 수 있고, 집으로 빨리 돌아 갈수 있다.

매번 파룬궁수련생들이 붙잡혀 들어 오면 악경은 파룬궁수련생을 하수인에게 맡기는데 그들은 어떻게 박해해야 할지를 잘 알고 있다. 때문에 여자감옥에서 파룬궁수련생들은 말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전향’이 철저하지 못하다고 또 박해를 당하게 되기 때문이다.

연변 화룡시 평폐이가 납치되어 세뇌반에서 박해 받다(런제2)

저녁 7~8 시쯤 되어 2 층 옆방에서 누군가를 끌고 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끌려가는 사람의 입을 막은 것 같았다. 그는 “우우”하면서 소리를 내지 못했다. 오미화는 낮은 소리로 “누가 술에 취해 들어왔는가보네”하면서 문을 열고 내다보았다. 얼마 안 되어 옆방에서 사람의 언어로는 형용할 수 없는 신음소리가 들려왔는데 사람의 전신에 소름 끼칠 정도였다. 약 2시간이 지나 그 사람의 뺨을 치는 소리가 나더니 잇따라 주사용 약물 유리병을 휴지통에 버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후에 2 사람이 문을 살짝 닫고 나왔는데 옆방에는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나는 너무나 놀란 나머지 눈을 크게 떴다가 또 코를 골며 잠든 척 했다.

26 일, 나는 아침에 화장실로 가면서 옆방 문패에 기구창고(器械库)라고 써어 있는 것을 보았다. 아래층에서 “리주임(李春值)이 술을 마이지 않으면 해내지 못한다.”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두눈에 피진 리춘즈가 마당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어제 밤에 있었던 공포의 장면을 생각하면서 리야취안이 말한 것처럼 박해받아 죽으면 아동저수지에 처넣고는 그냥 기록이 하나 더 많아 질 뿐인가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래로 더 생각할 수가 없었다. 오미화는 계속 나를 강박해 사부님을 모욕하는 비디오를 보게 했다. 9 시쯤 내가 갇힌 칸의 창문이 열려져 있어 나는 열려져 있는 창문을 바라보면서 ‘뛰어내려 도망치면 최소한 저수지에 버려지지는 않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바로 2 층 창문에서 뛰어내렸다. 뛰어 내린 후 지각이 없었다. 하지만 의식은 좀 있었다. 방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뛰어나오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중 한사람이 방에 있는 파룬궁수련생들이 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때 또 한사람이 ‘610’주임보고 계속 진행 하겠는가고 묻자 박주임은 “이렇게 되면 재미가 없소”라고 했다. 한 사람이 나의 발을 들고 마구 흔들자 다른 한 사람이 “움직이지 마오, 다리뼈가 곡절 되어 뼈가 튀어 나왔소, 피를 많이 흘렸으니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 되오.”라고 말했다.

그들은 나를 연변병원으로 보냈다. 검사결과 다리뼈는 분쇄성(粉碎性) 곡절, 허리뼈는 저첩성(折叠性)곡절로 진단 받았다. 금방 병실에 가자 화룡국보대대장 장보화(张宝华)가 한 무리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내가있는 병실을 향해 “함부로 말하면 안 돼. 법적책임을 져야 돼”라고 소리쳤다. 매일 24 시간 2 명 경찰이 병실에서 감시하고 들어오는 사람마다 모두 기록을 했고 후에는 사진까지 찍었다. 나는 농촌 의료보험에 참가 했었다. 연변병원에서 수술한 후 박영자는 내 남편에게 퇴원한 후 리춘즈에게 맡겨 치료비 결산을 청구하면 그가 뒤 문이 있기에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속였다.

퇴원한 첫날에 서성 중치판 리웨만이 우리 집에까지 와서 입원했을 때의 모든 영수증을 가져갔다. 내 남편이 몇 번이나 찾아가 달라고 했지만 그들은 주지 않고 있다가 한 달 후에야 수술비의 30%만 주었다. 당시 그들은 남편을 속여 80%~90%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나는 지금까지도 농사일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허리와 다리에 힘이 없어 나의 가정에 곤란을 가져오고 있다.